

차세대를 위한 레위기 27:1-13의 번역 시안

유연희*

1. 들어가는 말: 반역해야 하는 번역

나는 중학교 때 기독교인이 되었다. 성서를 처음 읽었을 때의 당혹감을 지금도 기억한다. 나는 제법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 당시 개역성경은 내게 좌절을 안겨주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시골 교회에서 초로의 목사님이 독특한 어투로 설교하시는 것도 성경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성경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혼자서 성경을 읽으며 잘 이해할 만한 한글 번역은 어때야 할까?

내가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 나와 성경 사이의 거리보다도 지금 중학생과 성경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진 듯하다. 그만큼 현대는 초고속으로 질주하여 고대에서 멀어진다. 동시에 초현대인은 고대를 그리워하고, 초현대인의 가장 큰 시대적 질병은 정신질환이다. 이 아이러니 때문에 성경은 이 시대 한복판에서 가장 필요한 책이 되었다. 이런 시대에 차세대와 성경을 어떻게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세계의 성서공회들과 교회의 고민이라고 본다.

좀 도발적인 표현으로 들리겠지만 번역은 반역이어야 한다. 번역의 운명은 반역이다. 성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성서 번역은 반역과 불신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완벽한 번역이 아니기에 불신앙이고, 그래서 모든 번역은 회개를 수반한다. 그러나 완벽한 원문이 없기에 성서 또한 우리의 부족한 번역을 용서한다.

번역은 다시 쓰는 것이라는 번역이론이 요즘 우세하다. 원문보다는 번역자가 권위를 갖는다는 이론이다. 번역자의 어휘 실력, 문학 능력, 신학 훈련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번역자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¹⁾ 그래서 원문의 운명은 번역자의 손에 달려 있다. 성서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까? 성서를 정말 ‘다시 써도’ 될까? 기독교인이 감소하는 초현대 시대의 성서 번역은 사실 성서를 다시 쓰는 일이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감리교신학대학교 외래교수, 구약학.

1) 참조, 이두희의 Philip A. Noss, ed.,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2007)에 대한 서평. 『성경원문연구』 26 (2010년 4월): 155-174, 특히 155, 157, 164.

2. 본론: 레위기 27:1-13의 번역

차세대를 위한 번역 시안으로 어떤 본문을 다룰까 생각하며 성경을 뒤적이던 중 “여자의 값은 삼십 세겔이다”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레위기 27장 앞부분이었다. “여자의 값”이라는 말자체가 전근대적인 표현이므로 새로운 번역 시안으로 적절할 듯하여 레위기 27:1-13을 택하게 되었다. 주제에 따라 1-8절, 9-13절로 나누어 다룬다. 번역 시안을 『새번역』과 『개역개정』과 함께 대조할 수 있도록 아래에 실었다. 제한된 지면 때문에 최근의 다른 번역본은 배제하였다.

2.1. 사람을 주님께 돈으로 드릴 때: 레위기 27:1-8의 번역

<p>차세대 성서 번역 안</p> <p>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여 말해주어라. 누군가를 주께 바치기로 특별히 약속하고 그 값을 드리겠다고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따른다. 3-7) 생후 일개월부터 다섯 살까지는,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계산하여 남아는 은화 다섯 개이고, 여아는 세 개이다. 다섯 살에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는 은화 스무 개이고, 여자는 열 개이다. 스무 살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는 은화 오십 개이고, 여자는 삼십 개이다. 예순이 넘는 사람은, 남자는 은화 열다섯 개이고, 여자는 열 개이다. 8 그 사람이 가난해서 지정 금액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사제를 만난다. 사제는 그 사람의 상황을 살펴서 금액을 정한다.”</p>	
<p>『새번역』</p> <p>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3 그 값은 다음과 같다.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오십 세겔이고, 4 여자의 값은 삼십 세겔이다. 5 다섯 살에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p>	<p>『개역개정』</p> <p>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3 네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4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5 다섯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p>

<p>자의 값은 이십 세겔이고, 여자는 십 세겔이다.</p> <p>6 난 지 한 달 된 아이에서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은 오 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삼 세겔이다.</p> <p>7 예순 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십오 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십 세겔이다.</p> <p>8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p>	<p>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열 세겔로 하며</p> <p>6 일 개월로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다섯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삼 세겔로 하며</p> <p>7 예순 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십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열 세겔로 하라</p> <p>8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p>
---	---

2.1.1. ‘말하다’라는 표현의 반복

서두에 비슷한 표현이 세 번 나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다바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다바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라’(‘아마르’) ... ” ‘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 지루하게 들린다. 우리말 번역에서 히브리어의 특징적인 대구법을 다 살리면 때로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들 동사를 세 번 다 넣기보다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여 말해주어라.’ ... ”라고 두 번으로 줄이고 ‘당부하여’를 넣어 부드럽게 번역하였다.

2.1.2. 특별한 약속

원문의 구문과 문법이 복잡하여 역본마다 번역이 다르다. 여러 번역본만을 비교하면 누가 누구를 바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것일까? 『개역개정』은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이라고 하여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람의 값을 언급하여 내용이 너무 함축적이고 원래 사람을 드리는 서원이었는지를 명시하지 않는다. 『새번역』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치는 서약이라고 하는 설명을 첨가하였다. 2절을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

2) 3-7절은 원문의 연령 순서를 따르지 않는 번역이므로 3-7절로 묶어 표현하였다. “히브리어 성서는 3절은 ‘스무 살부터 예순 살까지’, 5절은 ‘다섯 살에서부터 스무 살까지’, 6절은 ‘생 후 일개월부터 다섯 살까지’, 7절은 ‘예순이 넘은 사람’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는 내용을 번역 각주에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약하고,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이라고 번역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라고 하여 ‘서약한 사람’과 ‘바치기로 한 사람’을 둘로 구분하여 명시하였다. 본문은 서원에 관해서 구체적인 배경을 제시하지 않고 주석자마다 제안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명시할 것인지는 결국 번역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 본 번역 시안은 『새번역』처럼 자신이나 가족의 일원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한 사람이 정해진 금액을 성소에 돈으로 대신 드리는 것으로 서원을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배경에서 “누군가를 주께 바치기로 특별히 약속하고 그 값을 드리겠다고 한 사람은 ...”이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본 번역 시안이 ‘특별히’라고 번역한 ‘야플리’(yapeli)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 사전은 ‘어렵다’, ‘놀랍다’ 등을 제시한다.³⁾ 바룩 레빈(Baruch Levine)은 이 단어가 ‘팔라’(pl, 비범한, 독특한)가 아니라 ‘팔라’(plh, 나누다, 분리하다)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⁴⁾ 그러나 뒤따라 나오는 맥락을 고려하면 2절의 의미는 인간의 서원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여 드리는 것에 관한 규정이고, 인간의 ‘특별한’ 서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제이콥 밀그롬(Jacob Milgrom)에 의하면 이 규정은 인간 희생(삿 11장, 입다의 딸의 경우처럼)이나 성전에서의 평생 사역(삼상 1:11, 한나가 태어날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을 위한 서원을 반영한다.⁵⁾ 그러나 존 하틀리(John Hartley)는 레위인이 성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실제로 성소에 헌정된 경우는 예외라고 본다. 또한 고든 웬햄(Gordon Wenham)에 의하면 당시 노동자의 임금이 한 달에 약 1세겔이어서 본문이 명시한 서원의 값이 높은 금액이었다고 한다.⁶⁾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면 ‘야플리’를 ‘특별한, 독특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2.1.3. 서원, 서약 - 약속

히브리어 ‘네데르’(맹세)에 대해 『개역개정』은 ‘서원’,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서약’이라는 단어를 쓴다. ‘서원’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포

3) William L. Holladay,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71), 6791.

4) Baruch A. Levine, *Leviticu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193.

5) Jacob Milgrom, *Leviticus 23-27: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3B (New York: Doubleday, 2001), 2369.

6) Gordon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1979), 388.

현이고, ‘서약’은 ‘결혼 서약’ 때나 쓰는 표현이다. 둘 다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라서 감이 덜 잡힌다. ‘약속’이 더 보편적인 표현이고, 동시에 무게감도 전달할 수 있는 어휘이다.

2.1.4. 너의 값 - 값

‘에르케카’(값, 가치, 평가액)는 2인칭 소유격 어미가 붙은 형태이다. 그래서 일부 번역은 ‘너의 값’(NASB), ‘네가 매기는 값’(『개역개정』)이라고 문자적으로 번역했다. 이럴 경우, 문맥에서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이미 정해진 평가액이 있고 뒤따라 나오는 본문이 그 액수를 열거하기 때문이다. ‘너’가 결정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닌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청중으로 한다. 따라서 ‘너’의 등장은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 게제니우스(Gesenius-Kautzsch)는 이곳과 5-6절에서 ‘에르케카’(가치, 평가액)의 2인칭 소유격 어미가 뒤 문장의 주어라고 본다.⁷⁾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가 접미어가 붙은 상태로 굳어져 명사가 되었다고 본다.⁸⁾ 그래서 ‘에르케카’가 ‘너의 값’이 아니라 그냥 ‘값’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의미가 더 잘 통한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함께 쓰인 ‘남자’, ‘여자’와 번역하면 현대적인 정서에 딱히 걸맞지 않은 표현이 생겨난다. 『새번역』은 “남자의 값은 ... 이고, 여자의 값은 ... 이다.”라고 번역했다. 특히 여자 부분에서 원문은 ‘여자이면’ 또는 ‘여자일 경우는’인데, 번역에서는 ‘여자의 값은’이 되어 사람을 값으로 따진다는 표현이 되었다. 본 번역 시안은 이를 피하고자 “남자는 은화 오십 개이고, 여자는 삼십 개이다.”라고 하였다.

2.1.5. 야훼 - 주

『새번역』은 ‘야훼’를 ‘주’로 번역했다. 『개역개정』은 ‘야훼’의 옛 발음인 ‘여호와’를 고수한다. 학자들은 ‘야훼’가 원래 발음에 가깝다고 밝혀냈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인은 하나님을 ‘야훼’가 아니라 ‘여호와’로 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국 교인에게 새로 가르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 번역 시안은 ‘야훼’나 부정확한 발음인 ‘여호와’를 택하기보다는 더 무난하고 자주 쓰이는 ‘주’, ‘주님’을 택했다.

2.1.6. 세겔이라는 돈 단위

히브리어 ‘세겔’은 의미가 독자에게 다가오지 않으므로 한국 독자에게 익

7) E. Kautzsch ed., *Gesenius's Hebrew Grammar* (Oxford : Clarendon Press, 1910), ss128d.

8) 존 E. 하틀리, 『레위기』, WBC, 김경열 역 (서울: 솔로몬, 2006).

속한 옛 시대의 돈 단위인 은화 또는 ‘냥’으로 번역할 수 있다. 본 번역 시안은 은화로 하였다.

2.1.7. 나이의 순서

성경 본문에는 몸값을 나이별로 정할 때 20-60세, 5-20세, 1개월-5세, 60세 이상 등 일정하지 않고 섞인 순서로 나온다. 한국 문화에서는 보통 순서가 어린 연령부터 차례로 올라간다. 문화적인 이해를 따르는 것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때문에 번역 시안에서 연령의 순서를 바꾸어보았다.

2.1.8. 제사장 - 사제

하코헨을 ‘제사장’으로 번역하면 단 한 명뿐인 장으로서의 제사장이 연상된다. 그래서 본 번역 시안은 그냥 ‘사제’로 번역했다.

2.1.9. 서게 하다 - 만나다

독특한 히브리어식 구문과 표현법은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8절에서 히브리어 동사 ‘아마드’의 히필형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가 그를 (사제 앞에) 서게 할 것이다”가 된다. 『새번역』과 『개역개정』은 ‘데리고 가다’로 적절히 번역했다. 그러나 ‘데리고 가다’로 번역하면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가는지를 정하게 된다. 그래서 『새번역』은 “서약한 사람이 ...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고”라고 하였다. 이 번역은 원문에 없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문맥에서 유추하여 넣었다. 『개역개정』은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라고 하여 ‘너’가 ‘서원자’를 데려가는 것을 암시한다. 원문에는 ‘너’가 ‘그를 사제 앞에 서게 하는’ 주어가 아니라, ‘그’이다. 이 규정은 서원을 한 사람이 가난하여 지정 금액을 내지 못할 경우이므로 불확실한 ‘그’인 ‘바치기로 한 그 사람’과 무관하게 서원자를 주어로 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 사람이 가난해서 지정 금액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사제를 만난다.”

8절에는 사제가 “서원의 손이 뻗치는 대로” 값을 정한다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을 우리말 번역에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어 성서들은 ‘서원자의 수단에 따라’(NASB), ‘서원자의 능력에 따라’(KJV, NRSV)라고 했다. 『개역개정』은 ‘서원자의 형편대로’라고 번역했고, 『새번역』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라고 번역했다. 이 표현은 앞 문장과 조화롭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본 번역은 “그 사람이 가난해서 지정 금액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사제를 만난다. 사제는 그 사람의 상황을 살펴서 금액을 정한다.”라고 했다.

2.2. 동물을 거룩한 예물로 바칠 때: 레위기 27:9-13의 번역

<p>차세대 성서 번역 안</p> <p>9 그가 주님께 동물로 예물을 바치겠다고 하면, 그 동물은 주님께 거룩하게 된다.</p> <p>10 그 동물은 다른 동물과 바꿀 수 없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거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없다. 동물을 바꾸면, 원래 동물과 바꾼 동물이 모두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p> <p>11 그가 주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적합한 동물로 바치겠다고 하면, 그 동물을 사제에게 데려가도록 한다.</p> <p>12 사제가 동물을 평가하면, 그 동물은 사제가 정한 값대로 된다.</p> <p>13 주인이 그 동물을 도로 데려가려면 그 가격에 오분의 일을 더 보태야 한다.</p>	
<p>새번역</p> <p>9 그가 서약한 것이,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면,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p> <p>10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p> <p>11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곧 주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일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p> <p>12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그 질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p> <p>13 소유자가 그 짐승을 무르고 싶으면, 그는 그 짐승값에 오분의 일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p>	<p>개역개정</p> <p>9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p> <p>10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p> <p>11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p> <p>12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p> <p>13 만일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오분의 일을 더할지니라</p>

이 부분은 히브리어 표현이 비교적 분명하다. 다만 우리말 표현에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2.2.1. 짐승, 가축 - 동물

본 번역은 ‘짐승’이라는 단어를 ‘동물’로 바꾸어 썼다. 현대 한국 문화에서는 ‘짐승’은 더 미물 같고 ‘동물’보다 더 차별적인 단어인 듯하다. 최근 생태를 존중하고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사는 문화에서 ‘동물’이 더 보편적인 표현이다. 『개역개정』이 ‘가축’을 선택했는데, ‘가축’이라는 단어는 예물로 드리는 맥락과 웬지 덜 어울려 보인다.

10절에서 ‘베헤마 비베헤마’를 그대로 번역하면 ‘동물을 동물로 (바꾸면)’이다. 이미 앞에서 “그 동물은 다른 동물과 바꿀 수 없다.”고 했고 동물에 관한 규정이므로 ‘동물’을 두 번 모두 번역에 넣는 것보다 한 번만 넣어서 “동물을 (바꾸면)”으로만 해도 충분하고 우리말이 더 매끄럽다.

2.2.2. 제물 - 예물

‘코르반’(제물, 예물)은 서원으로 성소에 헌납하는 물품이나 재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종종 함께 쓰는 동사형 ‘카라브’는 희생 규정에서 제물을 ‘바치다, 드리다’를 뜻하는 전문용어이다. 분명 제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쓰인 표현이지만 상황을 현재화하고 한국 교회의 용어를 반영하자면 ‘제물’(『새번역』)보다는 ‘예물’(『개역개정』)이 나은 듯하다. 『새번역』의 “부정한 짐승 ...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 ... 그 짐승을 ... 끌고 가고”는 전반적으로 어떤 동물을 ‘부정한 짐승’으로 부르며 강제로 끌고 가는 것처럼 고대의 잔인한 희생제사를 연상시킨다. 본 번역은 ‘부정한’(‘타메’) 대신에 ‘부적합한’을 쓰고, 이를 다시 수식하는 구절을 ‘예물로 드릴 수 없는’이라고 번역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사제 앞에 서게 하다’를 위에서와 같이 ‘데려가다’로 번역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적합한 동물로 바치겠다고 하면, 그 동물을 사제에게 데려가도록 한다.”로 번역하여 현대 정서에 맞추어 보았다.

2.2.3.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다

12절에서 ‘좋은지, 나쁜지’(‘벤 토브 우벤 라’)는 평가하고 감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위 10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쓰였지만 문맥상 의미가 다르다. 10절에서는 “좋은 동물을 나쁜 동물로 바꾸거나, 나쁜 동물을 좋은 동물로 바꿀 수 없다.”로서 바꿀 수 없다는 데 초점이 있었다. 여기 12절은 사제가 동물의 상태와 가치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있다. 우리말 번역에 ‘좋은지, 나쁜지’를 그대로 넣을 수도 있지만 “사제가 동물을 평가하면”이라고 간결하게 표현해도 뒤의 “그 동물은 사제가 정한 값대로 된다.”와 함께 어울릴 수 있다.

2.2.4. 무르다-도로 데려가다

현대 독자는 ‘무르다’(‘가알’, redeem)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국어에서 비슷한 단어가 ‘(물건 등을) 도로 무르다, 물리다, 반납하다’를 의미하므로 혼동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문맥에 따라 대체할 만한 다른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본 번역은 ‘(그 동물을) 도로 데려가다’로 하여 “주인이 그 동물을 도로 데려가려면 그 가격에 오분의 일을 더 보태야 한다.”로 번역하였다. 뒤에서 집을 성별하여 주님께 바쳤다가 주인이 무르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때도 ‘무르다’ 대신에 ‘(집을) 도로 가지다’로 번역할 수 있다.

3. 글을 마무리하며

이 글은 차세대 성경 독자 및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을 고려한 번역을 시도한 것이다. 불과 몇 구절이었지만 정전,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고민스런 일인지를 경험하였다. 성경 번역이 모든 단어의 표현에서 절대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절감하였다. 성경은 일반책의 번역 및 출판과 사뭇 다르고 성경 번역자들과 성서공회의 숭한 노력과 고민을 거쳐서야 우리 손에 들어온다는 것을 새삼 체감하였다.

시대마다 이해하기 쉽고 접근 가능한 성경 번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같은 번역본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1980년대 초반에 『공동번역』을 처음 교회에 들고 간 날 목사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무슨 이단 서적 대하듯 하셨던 일이 생각난다. 한국교회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본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회 지도자들의 보수성,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쉬운 번역이 종교의 중후한 무게감을 훼손한다는 느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회에 오래 출석한 사람들은 개역성경 말투에 익숙하고 성경 내용에 익숙하기 때문에 쉬운 한국어 번역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교회에서 어떤 역본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오죽하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어린이들도 개역 말투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답한다.

그러나 쉬운 번역을 널리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번역본의 고대적인 표현에 익숙한 교인들이 연로해지고 있고, 한국교회가 교인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새로운 교인으로 전도할 필요성이 더욱 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서를 사용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선교 전략에도 유리하다.

성서공회는 오래된 교인들을 위해서 예스러운 번역으로 입맛을 맞추어주기보다는 차세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서번역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겠다.

(투고 일자: 2012. 10. 17., 심사 일자: 2012. 12. 21.,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6.)